

# “일할 사람도, 도와줄 이웃도 없어”...인력난 농촌 ‘한숨만’

## 곡성 블루베리 농장 수확 체험해 보니

“돌이 해도 한 줄 따는 데만 두세 시간은 걸려요. 혼자서 하다 보면 끝이 안 보여요.”

29일 오전 곡성의 한 블루베리 농장 하우스 입구에는 수확을 마친 바구니가 10여 개 가득 쌓여 있었다. 안쪽으로 들어가니 6줄의 지주대를 따라 블루베리 묘목이 빼곡히 심어져 있었다. 100여m 길이의 하우스 끝까지 묘목이 길게 이어졌지만, 작업자는 두 명 뿐이었다.

농장주 이미화(63)씨는 근처에 사는 그의 형님과 이날 새벽 6시부터 작업을 시작했다. 시간이 갈수록 더워지는 하우스 내부에서 땀방울을 훔칠 새도 없이 손을 놀렸다. 더위가 찾아오면서 과실이 익는 속도가 더 빨라져 시기를 놓치면 자칫 무를 수 있기 때문이다.

검게 익은 블루베리는 손만 대도 툭 떨어질 정도로, 1kg가량의 바구니를 채우려면 30~40분을 꾸준히 따야 했다. 농장주와 가족이 거의 모든 작업을 도맡아 하는 만큼 수확철이 다가오면서 시간도, 힘도 두 배로 걸린다.

귀농한 지 15년차 오성근(55)씨도 최근 딸기 모종농사를 시작하며 인력 문제를 실감하고 있다. 딸기 따는 게 가장 부담이라 친척네 집에서 하우스 세 동을 현장에 있던 외국인근로자들과 함께 직접 철거해 옮겨 설치했다.

오씨는 “요즘은 자재보다 사람이 더 비싸다. 사람 쓰는 게 일”이라며 “6월 중순쯤이면 확 바빠진다. 그때 인력을 많이 써야 되는데 걱정”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매년 농사철이면 농촌은 아우성이다. 논밭과 과수원을 일꾼 사람도, 일을 도와줄 마을 이웃도 찾기 쉽지 않다.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 인력도 웃돈 주고 쓰려고 해도 경쟁이 치열하다.

이씨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한 바구니라도 더 따야 한다는 생각으로 새벽부터 움직인다”며 “제때 수확할 사람이 없고, 그래서 품질이 낮아져 제값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농민 입장에선 허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단 두명이 100m 하우스 작업 1kg 바구니 채우는데 30~40분 외국인 근로자 쓰려면 경쟁 치열 “요즘은 자재보다 사람이 더 비싸” 농협,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 직원들 일손 돕고 인력 증개도

농협 전남본부 영농지원과 대상을 갖고 일손 돕기에 나서면서 농촌인력증개센터를 통해 일손 증개를 책임지고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으로 외국인 인력 확보에도 공을 쏟는 이유다.

당장, 농협 임직원을 비롯, 협약 기업·대학, 유관기관과 함께 벌이는 일손 돕기 활동은 연례 행사다. 올해도 농협 전남본부 관할 모든 법인, 지역 농·축협 등 250개 사무소의 1만명이 나선다.

농촌인력증개센터를 통해서도 8만 5000명의 인력을 확보, 농작업에 투입시킨다. 농촌인력증개센터가 없는 시·군지부와 농·축협도 자체 시스템을 가동해 9만명의 일손을 투입해 힘을 보탠다.

외국인 인력도 지원하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 15개 지역 농협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통해 367명의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몽골 등 아시아 국가 출신 외국인 노동자를 농촌 인력 돕기에 투입하고 있다. 여기에 공동 선별·출하, 농작업 일괄 대행, 발작물 기계화 사업을 통한 공동 파종·선별 등에도 직접 나서고 있다.

곡성농협의 경우 농민 일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협이 책임지고 농작물을 선별·출하하는 시스템도 운영중이다. 곡성농협 뿐 아니라 영암 군서농협은 56ha에 걸친 논콩 재배를 농작업 일괄 대행 방식으로 공동 생산·선별·판매 등으로 농민들 일손을 덜어주고 있으며 해남 땅끝농협도 마늘 재배에 필요한 기계를 빌려 파종·수확·선별 작업 등을 도맡으며 경작에 필요한 손을 거둬주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수확한 블루베리는 농협 선별장



농번기철을 맞은 농촌은 요즘 일손 부족으로 아우성이다. 광주일보 김진아 기자가 29일 곡성 블루베리 농가를 찾아 농장주 설명을 들으며 수확 작업을 도왔다. /곡성·박연수 기자 training@kwangju.co.kr

으로 옮겨지고, 농가에서는 인력 부담 없이 수확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모든 농촌 상황에 딱 들어맞는 건 아니다. 현재 계절근로자 시스템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는데, 이른 아침 농작물 출하에 필요한 일손의 경우 근로시간을 변경해야 하지만 조정이 쉽지 않아 농협의 고민도 깊다.

김연술 곡성농협조합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이들 인건비, 머무는 숙소, 근로 기간 동안 관리하는 문제 등 살펴야 할 게 많아 농협 뿐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의 고민과 대응 방안 마련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 어린 꽃게 불법 유통·판매한 일당 검거

목포해경, 7명 입건

돈 벌이를 위해 체장(몸 길이)이 법적 기준에 못 미치는 어린 꽃게를 조직적으로 불법 유통·판매한 일당이 붙잡혔다.

목포해경은 진도군 서망항 일대에서 체장미달 꽃게를 불법 유통·판매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어획물 운반선 선장 A씨와 수산물 전문 유통업자 B씨 등 총 7명을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28일 어획물 운반선 및 수산물 유통업체 등 총 8곳을 압수수색해 4t 규모(시가 4000만원 상당)의 체장미달 꽃게와 거래 장부 등을 압수했다.

A씨 등은 20여척의 꽃게잡이 어선과 어획물 운

반선, 수산물 유통업체, 도소매 상인 등과 공모해 체장미달 꽃게를 불법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체장 기준(6.4cm)에 못 미치는 꽃게를 포획한 뒤 운반선에 싣고, 수협 위판장을 거치지 않은 채 중매인을 통해 밀거래해 유통업체 소유의 냉동 창고에 별도로 보관·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체장 6.4cm 이하의 꽃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소지·유통·보관·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해경은 운반선 선장 및 유통업자 등을 상대로 포획·유통·판매망을 조사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총각 행세한 ‘불륜남’의 최후

처자식 둔 40대, 30대로 속이고 20대 여친에 돈 뜯어냈다 실형

처자식을 두고 조카딸인 20대 여성과 교제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해 가며 나이를 속이고, 수백만원 돈까지 뜯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일수)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45)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께 B씨와 알게 된 뒤, 같은 해 9월께부터 B씨와 교제하기 시작했다. 이때 A씨는 1980년생에 법륜혼 관계의 배우자

와 자녀까지 있었지만, 자신을 1990년생에 미혼인 것처럼 소개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께 B씨와 그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위조된 가족관계 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호적등본 등을 보여줬다. 증명서의 배우자란과 자녀란, 생년월일 등에 종이를 덧대 가리고, 위조 증명서를 복사해 가짜 증명서를 만드는 식이었다.

B씨 등을 감쪽같이 속인 A씨는 B씨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2023년 12월께 B씨에게 “사업자금 순환이 안 되는데 보험료(600만원)를 대신 납부해달라”며 금품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가 잘 운영돼야 아이도 책임질 수 있을 것”,

“노동중에 신고를 당한 상태인데, 아이 아빠가 고소당해야 되겠느냐”는 말로 B씨를 속이기도 했다. A씨는 또 같은 달 B씨에게 “법무사 비용을 대달라”며 64만원을 요구하는 등 총 664만여원을 뜯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위조한 공문서의 종류, 내용과 함께 B씨가 겪게 된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가법치 않고, 개인의 신분관계에 관한 공문서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조된 공문서들이 이 사건 범행 외에 다른 용도에 사용됐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돼 형을 다시 정한다”고 판시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해군 초계기 포항서 추락...승무원 4명 모두 사망

29일 경북 포항에서 훈련 중이던 해군 소속 해상초계기 1대가 추락했다.

해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0분께 포항시 남구 동해면 신정리 인근 아산에 해군이 운용하는 P-3C 초계기가 추락했다.

승무원 4명이 탑승한 사고 공용기는 이날 오후 1시 43분께 훈련차 포항기지에서 이륙했으며 7분 뒤 원인 미상의 이유로 급격하게 기저 인근에 떨어졌다.

추락 사고 현장 인근에는 빌라 등 민가가 밀집해 있지만 현재까지 민간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추락 현장 부근에서 초계기에 타고 있던 승무원 4명의 시신이 차례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사고 초계기에는 조종사인 소령 1명과 대위 1명, 부사관 2명이 타고 있었다. 추락한 초계기는 전투기와 달리 자력으로 탈출하는 기능은 없다고 군은 전했다. /연합뉴스

#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북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